

장성미래농업대학, 미래 농업인 육성 산실

현장중심 맞춤형 교육과정 호응 농업전문가 1477명 배출
약용작물과·먹거리유통과 신설...농진청 우수기관 선정도

장성군이 운영하고 있는 장성미래농업대학이 미래 농업 육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장성군은 농촌진흥청의 전국 농업인대학 운영평가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호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장성미래농업대학은 지난해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전남지역으로 한정하면 2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는 실적을 올렸다.

장성군은 교육생 만족도와 사후관리, 기술 향상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장성미래농업대학은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 대처하고 급변하는 소비시장을 선도하는 농업인을 양성하고자 2008년 출범했다.

'배움이 없으면 농업도 없다'는 표어를 내걸어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올해는 지역 특화사업과 연계해 약용작물학과와 먹거리유통학과를 신설했다. 약용작물학과는 고부가가치를 지닌 웰빙(Well-being) 농산물에 대한 농가의 관심을 반영해 개설했다.

생산-유통-판매로 이어지는 로컬푸드 순환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활성화 방안을 교육해 '마케팅 전문 농업인'을 양성했다.

장성군은 약용작물학과 학생들을 힐링 약용단지 조성사업 대상자와 연결하고 집중적으로 현장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또 교육생들이 약용작물재배 전문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약용작물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약초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주)씨와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12기 졸업식에서는 83명이 학사모



지난 3일 장성군 농업인회관에서 열린 제12기 장성미래농업대학 졸업식에서 다양한 세대의 농부들이 전문 농업인으로서 포부를 다지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장성군 제공〉

를 썼다.

이날로 장성미래농업대학은 20대 청년 농과 새로운 소득 작목 재배를 준비하는 70대 숙련농까지 1477명의 농업 전문가를 배출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졸업생에게 "영농기술을 널리 전파해 농사만 지어도 잘 사는 부자 농촌을 만드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장성군, 군의회 신청사 건립 추진

93억원 투입 2022년 완공

장성군청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군의회가 신청사를 건립한다.

장성군은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면적 2848㎡ 규모의 장성군의회 신청사가 2022년 12월 완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사 장소는 현 위치에서 직선으로 약 50m 떨어진 장성을 영천리 주택가다. 군의회 신청사 건립은 지난 3월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한 뒤 현재 토지 매입과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내년 6월까지 토지 매입을 마치고 실제 설계를 거쳐 10월 착공하며 총 사업비는

93억원이다.

민원봉사과는 의회 새청사에 자리 잡는다.

1992년 지어진 장성군청은 지방자치단체 기준 면적의 약 80% 수준이다. 업무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라 직원 휴게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의회가 이전하더라도 기존 면적 대비 880㎡가량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군청뿐만 아니라 의회도 공간 부족 문

제가 심각하다.

의회 청사 연면적은 852㎡로 법적 기준 면적의 약 56%에 불과하다.

전남 지역 17개 군 가운데 별관 형태로 군청과 분리된 청사를 가진 의회는 현재 12곳이다.

장성군은 내년 신청사 준공이 끝나는 해를 제외하고 가장 작은 규모의 의회 청사를 갖고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담양군, '성폭력·가정폭력 없는 담양만들기' 캠페인

지역 11개 기관 참여

담양군은 지난 2일 담양중앙공원과 담양읍 일원에서 성폭력·가정폭력이 없는 안전한 담양 만들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에는 담양인권지원상담소를 중심으로 경찰서와 담양평화의소녀상위원회, 전남도립대 경찰학과, 지역아동센터, 해림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빛고을공동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단체협의회 등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당신의 관심이 폭력을 멈추게 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캠페인은 여성·아동 보호 안전망 구축과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리플렛을 배부하고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사진〉 담양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폭력예방교



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경찰서, 인권지원상담소, 교육지원청 등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를 운영,

아동여성이 안전한 담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

담양군, 노인대상 소방안전교육
소화기 사용방법·심폐소생술 등

담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분과는 지난 3일 금성면 석현경로당에서 담양소방서와 연계한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석현경로당 이용 어르신과 노인분과 위원 등 40여명이 참여해 화재 때 대피방법과 119에 신고하는 방법, 소화기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야외에서 불이 날 경우 위치 확인하는 등 위기 상황 대처 요령에 대해 숙지하는 시간2을 가졌다.

교육을 담당한 고선희 담양소방서 반장은 "화재 발생 시에는 119에 신고 후 5분 안에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야외에서 불이 났을 경우 인근 전봇대의 일련번호 8자리를 불러주면 화재 위치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

화순군 '농민수당' 22억2540만원 지급

올 10~12월 3개월분 7418명 '화순사랑상품권'으로

화순군이 농협화순군지부와 지역농협을 통해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지급 대상자는 농민수당을 신청한 읍·면의 지역농협과 화순군지부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화순사랑상품권으로 30만원을 수령하면 된다.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월 10만원씩)으로 화순군의 지급 총액은 22억2540만원이다.

농민수당을 받는 농업인은 논·밭 등 농지 형상 유지, 철저한 가축방역과 적정 사육 밀도 준수 등 기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군은 지급 대상자 명부를 작성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마을회관에 비치하고

있다.

지급대상자 확인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에서 하면 된다.

앞서 군은 지난달 20일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위원장 최형열 부군수)를 열고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 등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신청자 8350명 중 7418명을 지급 대상자로 선정했다.

심의위원회는 화순 주소지 요건 충족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작물 실제 경작과 가축 사육 여부, 중복 신청 여부,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 3700만원 이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야생화단지과 야외학습장이 조성될 화순 만연산 오감연결길.

화순 만연산 오감연결길에 야생화단지

진달래·구절초 등 37종 심어...야외학습장도 조성

화순군이 만연산 오감연결길에 대규모 야생화단지를 조성한다.

화순군은 만연산 오감연결길 주변에 진달래와 구절초 등 37종의 야생화단지와 야외학습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연말까지 야생화를 심을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만연산 오감연결길(3.1km)을 비롯해 치유숲길(3.3km), 치유의 숲 센터, 동구리 호수공원 등이다.

치유의 숲은 올해 방문자가 10월 말 기준 24만여명에 달하는 등 다양한 체험공

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치유의 숲 센터에서 수만리 생태 숲으로 이어지는 오감연결길은 해발 668m 만연산 중턱을 가로지르는 울창한 숲길로 탐방객들이 즐겨 찾고 있다.

참나무와 소나무, 편백이 울창하게 숲을 이루고 있는 오감연결길은 무등산국립공원과 무등길로 연결돼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만연산 치유의 숲 환경을 가꿔 치유, 휴양, 힐링 등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